

양파 출하 현장 점검·농가 격려

최훈식 장수군수, 애로사항 청취·소통 나서… 산서면 고품질 양파 생산체계 구축 최선

최훈식 장수군수는 25일 최근 본격적으로 고품질 양파를 출하 중인 산서면 소재 양파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가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잦은 호우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확작업이 지연되면서 이모작 모내기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 군수가 재배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농가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군수는 양파 재배과정과 생산 여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유통과정에서의 여러 의견을 나눴다.

장수군 양파 주산지인 산서면에서 출하하고 있는 양파는 품질과 저장성이 뛰어나 다른 지역보다 높은 출하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산서면의 주소득작물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6월 수확기간 중 산서면 양파는 20kg 기준 약 40만 망 정도가 생산 출하돼 전국 각지에 공급될 예정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25일 최근 본격적으로 고품질 양파를 출하 중인 산서면 소재 양파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가들을 격려했다.

장수군은 양파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경영을 위해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사업,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은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양파는 산서면의 대표적인 특화작물인 만큼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군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서 양파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소통을 통해 농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75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개최

무주군

무주군은 25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제75주년 6·25전쟁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6·25참전유공자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신윤식)가 주관한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폜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내 주요 안보 단체 회원 및 6·25 참전 유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와 국민통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으며 6·25 노래와 만세삼창을 함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6·25참전유공자회 한영구 씨가 국가관과 군인 안보 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이외 김춘화 씨가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차동훈 씨는 6·25참전유공자회 무주군지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국가 안보와 평화 수호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복지 향상, 보훈단체 회원들의 권익 신장에 힘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진안군은 25일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 원도희 6·25 참전유공자회 진안군지회장을 비롯한 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보훈유공자 공로패 수여, ‘보훈의 달’ 기념 초등학생 홍보 포스터 공모전 입선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결의문 낭독, 만세삼창, ‘6·25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전춘성 군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모두 그분들과 유가족의 숭고한 희생과 인내 덕분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고,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수군은 25일 군민회관에서 6·25 참전 유공자회 장수군지회(지회장 한근)가 주관으로 제75주년 6·25전쟁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장과 군의원, 박용근 도의원, 장수군 8개 보훈단체장과 회원, 유가족, 미망인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호국영령을 기리고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를 표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대화사와 기념사, 6·25전쟁 관련 영상 시청, 현시 낭독, 6·25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101세의 나이에도 장계면 회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정영팔 어르신에게 감사패가 수여됐고 장수읍을 이미 50년째 사랑하고 있는 최수영 씨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체납 차량 유관기관 합동 단속

무주군이 25일 무주IC에서 무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무주지사,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과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군에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영치, 현장 징수했으며 무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국도로공사무주지사와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을 단속했다. 무주군은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합동단속으로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고독사 예방 위한 특별 교육 실시

무주군은 25일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 종사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련의 고독사 실태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고 우리나라에 고독사 개념을 소개한 김석중 키퍼스코리아 대표가 강단에 섰다. 김 대표는 ‘고립·은둔 사례로 살펴보는 고독사 예방 교육’을 주제로 △사회적 고립의 징후와 고위험 가구 유형 분석, △인적 안전망의 역할과 실제 활동, △위기가구 대상 의사소통 및 심리적 접근법,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질적 예방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고독사를 막는 길은 결국 주변의 관심”이라며 “이 교육은 인구감소,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접점 외로워지는 인구문제 속에서 이웃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한편,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연계 취업 설명회 열려

무주군, 로컬잡센터와 함께 하는 1:1 맞춤형 상담 호응

무주군이 25일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세미나실에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생들을 위한 취업 설명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로컬잡센터와 손잡고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은 입교생들과 지역 내 다양한 취업 정보, 일자리 연계 방안, 구인처 현황 등을 공유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개인별 취업과 관련한 애로사항 해소 등 실제 정착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입교생들은 “체재형 실습 전반기 무주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과정이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취업 설명회에서는 무주에서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안성면 소재)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이 미리 살아보며 지역 생활과 농촌문화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운영 중인 곳으로, 생활동과 공동경작지, 시골하우스 등의 시설에서 영농기초와 이론, 실습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해 이곳에 입교했던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10세대 11명으로 이들 중 이8세대 8명이 수료, 7세대 7명이 무주군에 정착해 87.5%의 정착률을 보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관광협의회 임시총회 개최

(사)진안군관광협의회(이사장 이재동)는 25일 진안군청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 앞서 ‘2026~2027 진안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는 홍보 퍼포먼스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회원들은 ‘진안방문의 해’ 브(브랜드 이미지)를 형상화한 대형 카드를 들어 올리고, 미리 제작한 기념 부채를 일제히 펼쳐 보이며 본격적인 진안방문의 해 준비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 퍼포먼스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진안 치유관광의 전국 확산을 위한 관광협의회의 의지를 담아낸 장면으로, 협의회는 ‘2026~2027 진안방문의 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환경의 뜻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실천적 참여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정관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개회안은 사무국 임직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조직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협의회는 ‘진안방문의 해’ 범인을 위해 ‘진안방문의 해 100인의 홍보 캘린더’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이재동 이사장을 시작으로 전춘성 군수, 지역사회 주요 인사, 공직자 등 총 100인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해 진안방문의 해를 널리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진안 전역에 방문의 해 분위기를 확산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